

# 풍성한 볼거리 · 체험 가득 '전주단오'

### 22~24일 전주덕진공원서 풍년기원제 · 단오문화마당 · 전통놀이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2023 전주단오'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했던 전주단오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행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함께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단오문화마당과 단오풍류마당, 전통놀이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먼저 단오문화마당에서는 △현장 접수로 선착순 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단오물맞이 '창포물 머리 감기 및 쪽욕 체험' △단오음식을 체험하



'2023 전주단오' 포스터

고 함께 맛보는 '수리취떡 체험 및 떡매치기' 등이 펼쳐진다. 또, 단오 세시풍속인 단오호적도와 장명부,

선비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전통 문양 수건 만들기 등 전주단오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단오풍류마당에서는 전주단오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와 시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가 준비돼 있다. 여기에, 전복무형문화재 공연과 온고을 문화예술제, 전주단오 합창놀이, 줄타기 공연 등 총 40팀이 3일 동안 관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전통놀이마당에서는 과거 단오날 행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력 활동인 겨루기가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단오씨름대회와 그네뛰기 대회가 펼쳐지며, 어린이 고리 던지기 대회를 통해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전주 단오 행사에

서는 부대행사로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이 사전접수 및 현장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 먹거리 등을 접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단오부채 전시 및 체험 △참포다례 체험 △떡나눔 행사 △전주단오 역사전 전시회 △단오등 소원지 달기 △줄타기 공연 및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이영숙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단오 행사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면서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된 전주단오를 많은 분이 오셔서 안전하게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캠페인

### 불법주차 · 충전방해 근절 홍보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충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는 20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송천동 예코시티단지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10만 원)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10만 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2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10만 원) △사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 수



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은 과태료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기자동차의 올바른 충전문화를 정착시키기 그동안 △전주시 공동주택 대상 집합교육 실시 △전단지 배포 △방문 홍보 △플래카드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왔다.

/김옥기 기자

## '강한 경제 전주' 위한 핵심사업 지원 건의

### 우범기 시장, 정부 세종청사서 기재부 예산실 찾아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이 예산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가 '강한 경제, 전주'를 위한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우 시장이 건의한 사업들에는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탄소·드론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최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범기 시장은 20일 주요 사업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민선 8기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지난달 말 기재부로 제출돼 기재부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처안에 반영된 사업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나아가 미반영된 주요 사업도 추가로 최대한 담아내겠다는 우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 예산 심의단계에서 국가 예산이 최대



우범기 전주시장은 20일 주요 사업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민선 8기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한 반영되도록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 시장은 또 각 주요사업별 예산실 담당과장에게 사업 당위성과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시장이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건의한 국가예산 핵심사업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북역사문화센터 건립 △드론 핵심기술개발 숲(전)주기 인프라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K-한지마을 조성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유아 기후환경교실 조성·운영 등이다.

우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광역도시 성장의 발판이 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전주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연결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기재부 예산심사가 끝나는 오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전을 위한 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주시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어필하고 최종 예산안이 제출되는 날까지 기재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완료된 만큼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예결위 위원에게 주요 사업을 사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교 내진성능 보강 공사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전주천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마치고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교량받침162개 교체 등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천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교량 중 하나이며 고정단 교각 기초부에 대해 내진등급과 수준의 안전성이 미확보로 평가됨에 따라 구에서는 지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 개소를 내진성능이 우수한 일체형 탄성받침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덕진구에서는 올해 전주천교 내진보강공사 예산 4억원을 투입해 9월까지 36개의 교량받침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전체 162개소에 대한 교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직원 직무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까지 3일간 공단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건지산 판매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숲길을 걷고, 스트레칭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달랐다. 공단은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허태균 고려대 교수 초청 부모교육 운영

전주시가 명사 초청 부모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부모의 마음, 그 소통'을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 특강은 모든 시민이 부모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허태균 교수는 '가끔은 제정신: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와 '어쩌다 한국인: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으며, 다년간 한국문화와 사회문제 심리학, 한국어기문화 등 한국인 심리에 대한 통찰력 깊은 분석으로 강단 및 방송매체를 통해 활동해온 명강사로 손꼽힌다. 이날 특강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사전접수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강 이후에는 전주시민의 질의에 대한 강연자의 명쾌한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이 평소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